



금성방재공업(주)

36년의 역사

36년 동안 쉼 없이 공장이 운영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금성방재공업주식회사는 1966년 동양전기공업사로 발족하였고 1974년 상호 변경이 있는 이래로 지금까지 36년이라는 시간동안 외길로 소방용기계기구 제조 및 시공에만 전념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왔으며 1997년 국가적 위기인 IMF의 격파고를 넘어 소방업계의 한 축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인화단결

IMF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간의 상호 끈끈한 정으로 뭉쳐져 있고 인화단결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1997년 노동부에서 수여하는 무재해5배 달성을 수상하고 동년 정부로부터는 산업포장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의 안정된 작업여건 및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임직원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로 다양한 인재풀을 형성하여 보다나은 품질로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품질경영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에 2001년 새로이 신축한 사옥에 현재 입주하여 전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 주문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충족제일주의”라는 품질경영 철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주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판매, 시공의 프로세스 공정마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성실한 시공으로 이루어져 테크노마트21, 삼성서울병원, 포스코센터, 타워팰리스-3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소방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 계

- 각 현장에 맞는 시스템 구성
-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 반영

시 공

-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내부 및 외부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는 검토

검 토

- 내부 및 외부고객의 요구에 충족하는지 제품 제조전 고객과의 합의 및 사전승인

승 인

- 승인된 시스템 구성을 적재적소에 납품하기 위한 판매망 구축

판 매

-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을 기초로 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공 진행, 완료 및 인수 인계

신제품개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창사 이래로 많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경제적, 인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1974년 국내 최초로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화재경보기를 개발하였고 이온화식 감지기를 개발하여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점점 방식의 P형 수신기에서 탈피하여 1986년 컴퓨터 제어방식인 R형 수신기를 독자개발하여 판매, 시공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MATSUSHITA ELECTRIC WORKS (松下電工), 캐나다의 Edwards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R형 수신기 모델로서 MPX-8810(집합형), GSI-2000, SMART-250, EST-3 의 모델은 이미 대표적 브랜드로 성장하여 많은 현장에 적용되어 화재 감시 및 제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품군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하는 FILK 마크를 받아 소비자의 화재보험 요율 경감 및 품질향상을 기함으로서 한층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금성

그러나 최근 국내의 시장판도 및 소방관계법규, PL법 등이 새롭게 발효되어 급격하게 시장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향상 및 신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안정화된 제품, 성능이 뛰어난 제품, 다기능의 제품 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방 한 분야의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内外 소방산업은 건축물들이 첨단화, 대형화, 광역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방산업도 자동화, 지능화, 첨단화된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재해발생시 신속·정확한 경보, 소화 및 피난활동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이에 21세기의 금성은 지혜와 용기, 도전정신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수준에 적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제2의 창업정신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